

★ (암병원 내시경실) 화재 발생 시 시나리오 ★

※ (암병원 내시경실)에서 불이 나면

1단계	행동요령	대화문
신고 전파 소화	내시경실에서 불이 나면 (타는 냄새, 연기, 불꽃, '불이야' 외치는 소리가 나면)	
	- (신고) 구내 전화 0119에 신고 또는 가장 가까운 화재 발신기 버튼을 눌러 신고	- 000 선생님, 화재 신고해 주세요.
	- (전파) 최초 발견자는 주변에 화재 사실을 알림	- (2회 이상 큰소리로 주위에 화재 사실 전파) 불이야! 불이야!
	- (소화) 발견한 직원이 소화기로 1차 소화 다른 근무자도 함께 소화 지원	- 소화기 진압을 시작하겠습니다.
	- 각 검사실 위치별 간호사, 의사, 사원 등 근무자가 환자수를 파악하여 해당실 밖으로 환자 유도. - 진화 완료되면 종료 진화 안되면 2단계 대피 시작(초동진화조 지시에 따른다.)	- 스스로 이동 가능한 환자는 직원 안내에 따라 (1층 외부 수평 이동 -6번,7번,8번 게이트로) 걸어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. - 1차 피난 장소 (1층 외부) - 집결지 : 장례식장 앞 - 거동 불편한 환자와 의료가 필요한 환자는 직원과 함께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지원
2단계	역할	
환자 대피	* 화재 진압 실패시 대피 유도 - 진화가 안되면, 화재실의 환자를 먼저 대피 시킨 후 검사실문을 닫고 다른 환자 피난 준비 - 피난결정은 초동진화조가 시행함. 그러나 초동진화조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불길이나 연기가 내시경실에 확산되는 경우 관리자 또는 선임간호사가 피난을 결정할 수 있다. - 초동진화조가 오면 관리자 또는 선임이 '화재 시 대피계획'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환자를 알려주고 환자이동 업무배분	
	* 파트장: - 상황파악, 환자 분류 및 지휘 - 환자 분류 지시, 각 담당 간호사에게 역할 분담 - 대피 상황 모니터링 - 지원반 도착 시 정보 인계	
	* 선임(운영,각 위치별 책임) 간호사: 파트장 부재 시 파트장의 역할을 대신한다. - 화재 진압 상황 파악 및 통제 지원, 대응 준비 - 산소 필요수량 추가 확보	
	* 의사: 검사실내 자력으로 피난 가능한 환자를 대피 1차 피난장소로 이동(검사실 간호사는 회복실 지원)	각 검사실 의사는 자력 피난이 불가능한 시술중인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이동 지원 후 1차 피난장소에서 환자 케어 담당
	* 준비실 간호사: 자력으로 피난 가능한 환자를 대피유도 보조자 및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 이용 환자를 대피	
	* 회복실 간호사: 침대(이동카) 환자 대피 수단 확보, 이동	각 검사실, 준비실, 설명 위치의 직원은 회복실 간호사와 함께 진정후 회복중인 환자 이동 지원 외래 환자는 깨워 부축하여 이동하고,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인 경우 지원 인력과 함께 이동카로 대피
	* 세정실사원: 회복실 대피보조 * 접수 간호사와 사원: 대기실 대피보조	피난계단 문 및 자동문: 대피시 개방, 대피 완료 또는 연기 유입시 문 닫기 -세정실사원: 회복실문, 복도쪽 자동문 -접수사원: 접수 앞 자동문
	* 마취(진정)중인 검사실 환자 대피 방법: 진료과 (마취과)의사의 판단에 따라 마취(진정)중인 시술환자는 이동카로 피난장소(1층 외부 수평 이동 -6번,7번,8번 게이트)로 이동한다. --의사 필수 동반 /간호사 또는 직원 - 화재 발생시 운영간호사는 검사실 전체 화재 사실을 알린다. - 생명유지에 필요한 의료 장비와 약물만 가지고 이동한다. - 마취과,마취 간호사 : 마취기기 가스를 잠그고 ambu bagging 하며 환자상태 모니터링을 한다. - 진료과 의료진, 검사실 담당 간호사: 내시경 시술을 중단하고 이동을 준비한다 - 검사실 순회 간호사: 이동에 필요한 자원(산소통 등)을 준비하고 대피로를 확보한다.	
	- 가스차단은 관리자 또는 선임이 최종 판단 결정하여 초동진화조에게 알림. ※ 1차 피난 장소에 집결되는 시점에 관리자 (의사 포함) 또는 선임이 최종 환자수 파악	